

삶이 묻어나는 남원 바다

남원의 해안가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넓게 펼쳐진 바다를 터전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마을들의 면면을 만나보자.



- 태위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4150-1 ~ 남원을 태흥리 366-1(약 10km)
- 남원중앙로** |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리 2490-95 ~ 남원을 남원리 1246(약 0.5km)
- 남원광지로** |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리 1337-10 ~ 남원을 남원리 1510-3(약 0.5km)
- 남원월산로** |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리 1577 ~ 남원을 남원리 1056-9(약 1.6km)
- 수은로** |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리 1577 ~ 남원을 남원리 1627(약 0.5km)
- 태흥중앙로** | 서귀포시 남원을 태흥리 1780-1 ~ 남원을 태흥리 1712-6(약 0.4km)
- 남태해안로** |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리 1418-1 ~ 남원을 태흥리 358-1(약 5.5km)
- 태신삼석로** | 서귀포시 남원을 태흥리 121-3 ~ 남원을 신흥리 1577(약 3km)
- 삼덕로** | 서귀포시 남원을 태흥리 119-3 ~ 남원을 태흥리 62-37(약 0.3km)
- 신흥로** | 서귀포시 남원을 신흥리 166-1 ~ 남원을 신흥리 1587-3(약 2.9km)
- 태신해안로** | 서귀포시 남원을 태흥리 358-2 ~ 남원을 신흥리 8(약 3.6km)
- 신흥고수로** | 서귀포시 남원을 신흥리 1125 ~ 남원을 신흥리 632-13(약 5.3km)

태위로 | 큰영해안경승지

태위로는 태흥리와 위미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위미리의 위미입구 교차로에서 시작해 태흥리의 소금밭 교차로까지 이어진다. 예전에는 일주도로로 이용되던 길이어서 이웃 마을을 왕래하려면 이 길을 이용해야 했다. 지금도 위미와 남원, 태흥초등학교를 비롯해 여러 마을의 리사무소들, 그리고 남원읍사무소 등 번화가를 지나고 있다. 태위로 인근에는 남원리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큰영해안경승지가 있다. 큰영해안경승지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안이 절벽이 파도에 의해 점점 깎여나가 마치 동굴처럼 움푹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큰영의 ‘영’은 제주어로 바닷가의 절벽에 뚫린 바위 그늘이나 굴‘을 의미하는 말이다. 큰영 절벽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할 수 있는 2km 남짓한 숲길이 마련되어 있다. 산책로에는 소가 떨어진 구멍이라고 하는 우렁굴,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한반도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절벽 위를 걸으며, 푸른 바다와 함께 펼쳐진 멋진 풍경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다.



큰영해안경승지

남원중앙로/ 남원광지로 | 남원리와 광지동

남원중앙로는 남원리(南元邑)의 중심 도로로 태위로에서 일주동로로 이어진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쉼왓이라는 곳의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라고 한다. 이후 넙은못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났고, 바닷가를 터전으로 소금이나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남원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옛날 서의귀라고 불리던 곳에 관원이 있었는데 이 원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원(南院)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후 남쪽의 으뜸 마을이라는 뜻으로 남원(南元)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원중앙로 서쪽으로 나란히 나 있는 남원광지로는 넙은못 또는 너브못이라 불리는 연못을 중심으로 생긴 마을인 광지동(廣池洞)에 접하는 길을 의미한다. 넙은못은 빗물이 고여서 생긴 봉천수인데 여러 개의 물통이 있는 큰 연못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서 시원하게 몸을 씻기도 했고, 집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마땅한 놀거리가 없었던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매립되어 예전의 규모는 잃어버렸지만 남원119센터 아래에 일부가 남아있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남원월산로/수은로 | 월산동과 수은동

남원월산로는 광지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인 월산동과 접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월산동(月山洞)은 마을의 지형이 초승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와 다른 견해로는 마을에 있는 덩불과 돌이 우거져 있는 툄동산을 툄동산으로 잘못 부른 것이 월산동이 되었다고도 한다. 월산동의 리사무소 인근에는 범아구리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의 지형이 호랑이가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결혼하는 행렬이 이 길을 지나면 부부가 사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곳을 피해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예전의 모습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수은로는 **남원월산로** 남쪽으로 이어지는 월산동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인 수은동(水隱洞)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이 마을은 수은물 또는 순물이라 불리던 연못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연못의 물이 매우 맑아 밤에 달이 떠오르면 마치 물속에서 달이 뜬 것과 같이 보였다고 해서 수월동으로 부르다 나중에 수은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말과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찾았던 연못이라고 전한다.



들렁머리

태흥중앙로/남태해안로 | 태흥리 들렁머리

태흥리 중앙에 위치하는 도로라는 의미인 **태흥중앙로**는 태흥1리 마을회관에서 시작해 일주동로까지 이어진다. 태흥리(泰興里)는 크게 흥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안에 있는 소서물을 중심으로 고려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서물이 10년을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전하는 것을 보면 물을 구하기 힘들었던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폴개라고 불리던 태흥리의 해안가에는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남태해안로**가 있다. 남태해안로는 남원리에서 태흥리의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이다. 이 길에는 들렁머리 또는 들룡머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용이 승천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곳에는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이 늘어서 있어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파도가 심하게 칠 때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사람들은 승천하지 못한 용의 울음소리로 여기기도 했다.

태신삼석로/삼덕로 | 삼석골과 삼덕동

태신삼석로는 태흥리와 신흥리 사이의 옛 지명인 삼석골에 접한 길이라는 의미이다. 삼석골은 인근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마을에 커다란 돌이 세 개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삼석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이 근방이 과수원으로 변하면서 돌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김희은이란 사람이 이 마을에 서당을 세워 교육을 실시했는데 삼석골에 세운 서당이라고 해서 삼석서당이 불렀다고 한다.

태신삼석로와 일주동로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삼덕로**는 삼덕동(三德洞)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길은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덕돌포구로 향한다. 삼덕동은 태흥3리의 마을인 삼석동과 덕돌포, 그리고 산변포를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 성벽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마을이 바다와 가까이에 있어 조선시대에는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고, 4·3사건이 일어나자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다. 이 성을 만리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거에 마을을 지켰던 성벽의 흔적은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버려 찾아볼 수 없다.

신흥로/태신해안로/신흥고수로 | 신흥리 동백마을

신흥리 지역의 중심도로인 **신흥로**는 신흥리의 두 마을인 신흥1리와 신흥2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신흥리는 남원읍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로 표선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여우내, 온천리 등으로 불리다가 새로 일어나라는 뜻으로 신흥리(新興里)라고 했다고 한다. 해안가 마을인 신흥1리는 방구동과 보말동이 있다. 그 중 보말동은 바닷가의

지형이 마치 고동처럼 보여 고동을 의미하는 제주어인 보말을 사용해 보말동이라 했다고 한다. 바닷가에는 보말개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자연포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흥1리의 바닷가에는 태흥리 포구에서 시작해 신흥1리의 해안가로 이어지는 **태신 해안로**가 있다. 바다를 옆에 두고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로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동백마을

신흥1리와 2리를 연결하는 또 다른 길인 **신흥고수로**는 홍산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작해서 신흥2리의 중산간 마을인 고수동(古水洞)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고수동은 옛날 고씨 성을 가진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 목욕을 했다고 하는 고승이물 주변에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신흥2리의 명물은 동백나무군락지이다. 신흥2리사무소 인근 있는 동백나무군락지에는 3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5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다. 마을의 설촌과 함께 했다는 이 나무들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왔다. 조상들이 남겨놓은 동백나무는 오늘날 마을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있다. 동백열매를 원료로 비누와 동백기름을 만들어 판매하고 화장품의 원료로 제공되면서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흥2리에서는 동백나무를 브랜드화하여 동백마을이란 테마로 마을을 홍보하고 있고, 동백마을숲길을 조성해 동백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다.